

처용(가)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최 용 수

〈차 례〉

- | | |
|---------------|-----------------|
| I. 머리말 | 4. 불교신앙적 관점 |
| II. 연구 경향별 검토 | 5. 역사·사회학적 관점 |
| 1. 어학적 관점 | 6. 설화적 관점 |
| 2. 문학적 관점 | 7. 심리학적 관점 및 기타 |
| 3. 민속신앙적 관점 | III. 마무리 |

I. 서 론

1893년 岡倉由三郎의 ‘吏讀諺文考’(동양학회잡지 143·144호, 1893) 이후 향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18년 金澤庄三郎, 신채호의 처용가 해독에서 비롯된다. 해독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 것은 물론 고려 처용가이다. 그래서 「삼국유사」·「균여전」에 실려 있는 향가의 해독 및 노래 내용, 그리고 배경설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100여년이 된다. 1세기동안 향가에 관련된 논문만도 2,400여편이 된다.¹⁾ 그 중 처용가에 대한 연구는 다른 어느 작품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²⁾ 그 성과 또한 대단하여 처용가 이해는 물론 국문학 이해의 깊이를

1) 향가·고전소설관계 논저목록(황폐강·강재철·김영수 편, 단대 출판부, 1984)에는 1982년까지 향가관계논문 1479편, 저서 및 자료 284 책의 목록이 있고, 향가·고전소설관계 논저목록(화경 고전문학연구회 편, 단대 출판부, 1993)에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 향가 관계논문 900편, 저서 및 자료 68책의 목록이 있다.

더해 주었다. 그리하여 처용가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종합 토론 및 발표대회가 이루어지고, 처용연구논총이 나오기까지 되었다. 단일작품 대상으로는 처용가만큼 이루어진 것이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업적에도 불구하고 실상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는 심층모형 탐색을 위한 의견접근 내지 원리를 제시해 주는 데 기여는 했지만, 異論의 노출이 더 심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처용의 정체만 하더라도 어부·佛子·화랑·龍子·무당·지방호족의 자제·이슬람 상인·龍城國人인 변방족·남방계 이민족·日蝕神·용신이면서 터주신·여름의 상징·민중의 상징적 인물·관념적 소산·의식 등 그야말로 각양 각색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처용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의 복잡성과 독창지향적인 학문의 속성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처용설화가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복잡성이 있기에 어느 한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독단의 주장으로 조명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에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 자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접 학문의 원용에서도 상호보완이 있어야 한다. 처용(가)에 대한 실체 규명의 진전을 위해 지금까지 연구된 업적을 정리하여 반성과 전망을 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연구사의 정리가 쉽사리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근심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기존 연구 업적을 모두 탐독할 수 없어 접할 수 있는 논문만 살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과 연구자의 논지를 다르게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선학들의 많은 질정을 바란다.

2) 처용연구논총(김동욱·황패강·김경수 편, 울산문화원, 1989)에는 처용관계논문 목록에 151편이 작성되어 있다. 필자가 종합해 본 결과 처용관계 논문은 241편으로 작성할 수 있었다.

II. 연구경향별 검토

처용가 및 그 설화에 대한 연구를 史的으로 개관해 보니 시기마다 그 나름의 연구 쟁점이 있으며, 그 쟁점의 결과를 극복·수용하면서도 방법론의 차이로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하여 그런 것으로 나타났는가, 연구 경향별로 묶어 살펴 보아 처용(가)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것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디딤돌이 되게 하는 데 의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처용(가)에 대한 연구 경향의 분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대동문화연구: 1. 어문학적 접근 2. 민속학적 접근 3. 역사학적 접근(81)

김학성: 1. 역사학적 관점 2. 불교적 관점 3. 민속학적 관점(129)

이상비: 1. 어학적 측면 2. 문학적 측면 3. 불교적 측면 4. 민속학적 측면
5. 정치학적 측면 6. 종교학적 측면 7. 역사학적 측면(105)

최성호: 1. 어학적 견지 2. 민속학적 견지 3. 불교적인 견지 4. 역사학적인 견지(139)

岡山善一郎: 1. 언어학적 연구 2. 민속적 연구 3. 설화적 연구 4. 불교적 연구 5. 연극적 연구 6. 역사·사회적 연구(165)

김진영: 1. 무속신앙적 관점 2. 불교신앙적 관점 3. 역사·사실적 관점 4. 정신분석학적 입장(187)

김경수: 1. 어학적 해석 2. 설화문학적 해석 3. 민속학적 해석 4. 문학적 해석 5. 종합적 해석 6. 기타: 첫째, 역사적 사실 둘째, 정신분석학적 접근 셋째, 사회학적 관점(214)

필자는 처용(가)에 대한 연구를 통시적으로 개관해 보니 1. 어학적

관점 2. 문학적 관점 3. 민속신앙적 관점 4. 불교신앙적 관점 5. 역사·사회적 관점 6. 설화적 관점 7. 심리학적 관점 및 기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 이에 따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어학적 관점

처용(가)에 대한 어학적 관점의 연구를 처용가의 해독, 처용가 풀이의 방법론, '처용'의 語義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처용가의 해독

처용가의 해독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여타의 향가보다 논란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먼저 해독을 살펴 보기로 한다.

- | | |
|-------|----------------------------|
| 악학궤범 | a. 東京불근돈래 새도록노니다가 |
| 鮎貝房之進 | b. 동경불괴달 밤드리, 놀앗다가드러사자되(2) |
| 권덕규 | c. 東京밝은달애, 새도록노니다가(3) |
| 小倉進平 | d. 東京붉은달애, 밤들어노니다가(6) |
| 前問恭作 | e. 東京붉은달애, 밤들어노니다가(10) |
| 이 탁 | f. 東京 불은 돌애, 밤들이 노니다가(24) |
| 유창선 | g. 東京붉은돌애, 밤들리노니다가(26) |
| 양주동 | h. 시불 불괴 드래, 밤드리 노니다가(29) |
| 重光兌鉉 | i. 東京붉은돌애, 밤드리노니다가(33) |
| 지현영 | j. 서불 불기 드래, 밤드리 노니다가(37) |
| 홍기문 | k. 동경 불기 드래, 밤드리 노니다가(43) |
| 김준영 | l. 東京 불기 돌애, 밤들이 노니다가(55) |
| 김선기 | m. 사라뿔 빨간 딸애, 밤들이 노니다가(64) |
| 서재극 | n. 東京 불괴 드래, 밤드리 노니다가 |

- 김완진 o. 東京 불기 드라라, 밤드리 노니다가(147)
 박병채 p. 셔블 받기 달랑, 밤들이 노니다가
 고정의 q. 東京 불기 드라, 밤드리 노니다가(209)
 정열모 r. 동경 불곤 돌, 양야 드려 노니다가(227)

- a. 드러내자리로보니까리네히로새라
 b. 보곤달*이 넷이러라, 두홀은 나이리엇고
 c. 들어 내 자리를 보곤, 가랄이 네이로새라
 d. 들어사자리에보곤, 가롤이네히러라
 e. 들어사자리보곤, 가로 | 네히어라
 f. 들어스 잘위 보곤, 허되(다리) 맛(넷)이어라
 g. 들어서 자리를 보곤, 가롤이네히러라
 h. 드러사 자리 보곤, 가로리 네히어라
 i. 드러사몸채보곤, 허튀네히러라
 j. 드러사 자리인 보곤, 가론리 네히러라
 k. 드러사 자리 보곤, 가로리 너히어라
 l. 들어사 자릭 보곤, 가로이 네이아라
 m. 돌아사(돌아와) 자리 보곤, 가롤이 낙이리라(넷이리라)
 n. 드러사 자리 보곤, 갈외 너히아라
 o. 드러사 자리 보곤, 가로리 네히러라
 p. 드러사 질에 보곤, 갈오이 니이라라
 q. 드러사 자리 보곤, 허튀 네이아라
 r. 들어 식침애 보곤, 드리 어이 네히어라

- a. 아으 둘흔내해어니와둘흔뉘해어니오
 b. 두홀은누기아리언고, 본터나아리이다마어는
 c. 아으 둘흔 내해어니와, 둘흔 뉘해어니오
 d. 둘은 나이엇고, 둘은 누이언고
 e. 둘흔 내이엇고, 둘흔 닛이언고

- f. 두불은 내해엇고, 두불은 누의해언고
 - g. 두홀은 내히엇고, 두홀은 누히언고
 - h. 둘은 내해엇고, 둘은 누해언고
 - i. 둘흔 내해엇고, 둘흔 누해언고
 - j. 둘은 내해엇고, 둘흔 누스해언고
 - k. 두후른 내하엇고, 두후른 누기하언고
 - l. 두불흔 내알엇고, 두불흔 누스알언고
 - m. 두불칸 우리까온고(내것였거니), 두불칸 누기까안고
 - n. 두불흔 나하엇고, 두불흔 누히하언고
 - o. 두보른 내해엇고, 두보른 누기헨고
 - p. 두홀은 나하엇고, 두홀은 누하안고
 - q. 두보른 내해엇고, 두보른 누기헨고
 - r. 두홀은 내히엇고, 두홀은 누기헨고
-
- a.
 - b. 삿을랑을 엇치헨리고
 - c. 본대 내해이다 마르느, 아인들 어떠하리오
 - d. 믿이 내이다마른 세앗어늘 엇디헨리엇고
 - e. 본디 내이다마른 앓아늘 엇디홀고
 - f. 본디 내해이다마른 아사늘 엇디
 - g. 본디 내히다마느, 아옏어늘 엇디헨리고
 - h. 본디 내해이다마른, 앓아늘 엇디헨릿고
 - i. 본디 내해이다마른, 아서늘 엇디헨리쇼
 - j. 본디 내해이다마른, 아사늘 엇디헨리고
 - k. 아세 내해이다마른, 바사늘 엇데헨리고
 - l. 본디 내알이다마언, 앓아을 엇디헨리고
 - m. 모토이 우리까이다말은(믿이 내것이라만), 앓을랑을 아다까리고(앓음을
어찌하리오)
 - n. 아리 나하이다마느, 아사를 엇디헨리고

- o. 본디 내해다마르논, 아사놀 엇다흐릿고
- p. 밍이 나하이다말언, 밧팔을 엇다흐릿고
- q. 미트 내해이다마르논, 아사놀 엇다흐릿고
- r. 본디 내히이여르론, 아스물 어이흐릿고

이와 같이 처용가 해독이 다양하나, 내용 파악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東京’, ‘月良’, ‘本矣’의 해독이 여타의 것에 비해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東京’은 ‘동경’의 음독으로 하느냐, ‘서불’의 훈독으로 하느냐에 따라 해독이 차이가 나타난다. 고정희는 ‘서불’로 해독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하고, 음독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東京’은 그 독법과 아울러 문장성분도 재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東京’이 ‘明期月良’의 공간적 배경으로 이해되면 제1행은 ‘東京 밝은 달에’가 되어 ‘東京’은 서술어 ‘明期’가 형용사이므로 속격이 되는데 형용사가 아니고 타동사이면 이는 목적격이 된다고 했다(209). 그래서 ‘明期’를 동사로 보아 목적격 ‘東京(을)’으로 해독했다.

‘月良’의 해독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ㄷ래(돌래)’, ‘ㄷ라’, ‘달랑’이다. ‘ㄷ래’는 「악학궤범」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주장하는 학자는 ‘良’을 처격으로 보고 있는데, ‘月良’을 ‘ㄷ래’로 해독할 경우 ‘月’은 ‘月夜’의 은유적 표현이란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하여 ‘良’을 호격으로 해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209). 그리하여 ‘月良’을 ‘ㄷ라’로 해독했다. 박병채는 ‘月良’을 ‘돌랑’으로 해독하여 舉格形으로 보았는데 이는 現用하는 ‘너랑 나랑 같이 가자’의 ‘랑’의 원형이라는 것이다.³⁾

‘本矣’도 음독이냐, 훈독이냐에 따라 해독이 달라진다. ‘본디 · 본디 · 본의 · 본대’는 음독이고, ‘밍이 · 아세 · 모토이 · 아리 · 미틱’은 훈독이

3) 박병채, 고려가요의 어석 연구, 二友出版社, 1980, p. 163.

다. ‘본티’의 근거로 양주동은 ‘나는 킷치 본티 고고리 업도다(飛槽本無蒂)(「두시연해」 2권 63장)’, ‘不善飾曰 本道安里癡蛇(본티아니마샤)’(「계림유사」) 등의 예를 들었으며(32), ‘믿이’의 근거로 소창진평은 ‘도로 믿나라해 와’(本因:「월인석보」 8권 49장)와 ‘사르미 믿지블 몰라 일코’(本家:「월인석보」 21권 117장)를 예를 들고 있다(6). 한편 홍기문은 ‘아세’의 근거로, 문헌에 나타난 말만이 오랜 것이 아니라 하면서, 현대어 ‘아예’라는 부사가 있는 데 이것은 한자와 합하여 ‘애初’, ‘애當初’ 등의 말을 이루고 서남방언과 동남방언에서 ‘아시’, ‘아세’ 등으로 되고 있다고 했다(43).

어느 해독을 따르느냐에 따라 다소 해석의 차이는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장 성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작품 해석에 앞서 해독이 이루어져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헌 자료, 방언 등의 원용도 해야겠지만, 아울러 문장 성분과의 관계, 전후 문맥의 내용에 따른 상호 유기성, 그리고 문학적 해석에 따른 해독도 고려해 보아야 어학적 해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처용가 풀이의 방법론

처용가 구절 풀이에서 논의의 쟁점이 되는 것은 ‘奪叱良乙何如爲理古’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歌作無而退’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退’를 ‘물러났다’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빼앗은 것을 어찌 할 것인가’의 체념의 표백으로 보고(32), ‘물리쳤다’의 뜻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어찌(감히) 빼앗음을 하릿고’의 진노의 표현으로 보았다.⁴⁾ 이기문은 처용가 해독의 가장 문제는 마지막 1행이라 하면서, 종래의 해독은 이 마지막 1행이 처용의 체념적 태도를 표시하였다고 하면서

4) 이기문, 「국어학 개설」, 1961. p. 65

그러나 原始 宗教에 대한 약간의 造詣를 가지고 있는 이라면 惡魔神을 쫓는 處容에 대하여 謠念云云이 얼마나 당치 않은 것인가를 의당 의심해 볼직하다. 三國遺事의 ‘歌舞而退’는 處容이 물러났다는 과거의 해석과는 反對로 處容이 歌舞하여 물러났다고 해석하는 것의 옳을 것이다.⁵⁾

라고 하고서, 끝 구를 ‘어찌 (감히) 빼앗음을 하랴고’로 해석하였다. 이는 곧 어학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다른 분야의 원용도 가능함을 제시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황패강은 이른바 ‘원시종교’의 조예에서 온 이 박사의 끝 구 해석 내용의 시비는 차치하고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어학적인 해독이 어학분야가 아닌 ‘원시종교’의 분야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는 방법론 제시라 하였다.⁶⁾

한편 려증동은 ‘處容……乃唱歌，作舞而退’라는 대목을 ‘처용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서 그 귀신을 물리쳤다’고 오해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처용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스스로 물러 섰다’의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즉 ‘退’는 남움직씨가 아니라 재움직씨기 때문에 목적어를 뒤에 두지 못한다고 했다(138).

그리고 고정익은 ‘빼앗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풀이 하는데, 이는 7행과의 문맥 호응에서 ‘본래 내 것이지 마는’(현재 역신이 범하고 있으니)(내가) ‘빼앗음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로 읽어 본래 나의 부인인 아내를 어떻게 빼앗아야 하느냐고 달에게 묻는 것으로 해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09).

정열모는 끝 구를 ‘아스물 어이후리고’로 해독하고, ‘빼앗음을 어찌 할꼬’로 풀이하여 ‘단념’이 아니라 ‘항거’의 뜻으로 보았다(227).

또한 최재남은 끝 구의 해석을 시적 화자의 태도, 즉 ‘公不見怒’나

5) 이기문, 앞의 책, p. 65(황패강, 處容歌 研究의 史的 反者과 一試考, 「鄉歌麗謠研究」, 황패강 외 共編, 二友出版社, 1985, pp. 126-127에서 재인용)

6) 황패강, 앞의 논문, p. 127.

고려처용가에서 7~8구를 수록하지 않아 결말의 태도가 다를 수 있다고 보아 ‘빠앗은 것을 어찌하리오’로 보되 체념의 자세로만 이해하지 않고 적극적인 관용으로 보았다(236).

이와 같이 처용가 끝 구의 해독에 대해 ‘체념·진노·하소연·항거·관용’ 등의 뜻으로 이해하여 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어학적 관점의 해독방법을 넘어 다른 관점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를 부여할 만한 것이다. 즉 어학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3) ‘처용’의 語義

‘처용’의 語義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처용의 정체는 물론 작품의 해석 및 처용설화의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처용’의 語義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양주동은 ‘처용’의 語義가 미상이나 속칭 ‘제용’이라 함에 그것이 대개 ‘치용·제용’의 차자임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原義를 풀지 못함이 유감이라 했다(32).

김용구는 ‘龍日稱’을 彌의 誤字가 아니고 ‘칭’이란 전제하에서 ‘처용’을 ‘총’으로 보고, 이는 龍의 뜻이라 했다. 또한 탈해전설에 나오는 ‘龍城國人’ 조항을 인용하여 용을 ‘Ks, Kus, Kut’의 어원을 가진 것이라 하면서, 다시 𪛗까지 방증으로 삼아 고대의 용 이전의 신격에 비기었다(42).

김동욱은 ‘처용가 挿疑’(51)에서 처용이 어의를 신격으로 추상하여 蒼龍·靑龍·燭龍 등에 比擬할 수 있다고 하고, ‘처용가 연구’(52)에서는 이를 시정한다고 한 다음, 새로운 견해라 하면서 처용이 ‘중·춤’의 한자음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지현영은 처용이 ‘고시논’·‘고시레’의 표기라 하면서, 이를 설명하기를 ‘구술늑……: 窟理叱大勝生’(안민가), 탈해왕조(『삼국유사』 권1, 제

4)의 ‘龍城·正明·花厦’, 김유신전(「삼국사기」 제41 열전 제1)의 ‘龍華’ 등으로 異寫되어 있는 것도 이것의 표기이며, 容處(龍子)도 이것의 표기라 하였다, 그리고 ‘구술늑’은 우리 민속에 고시레, 고시레人이라는 말로 아직 남선 각지의 농민들 사이에 남아 있으며, 이는 高麗(高尙秀麗), 光明·日明·朝鮮의 뜻을 지닌 三韓의 대명사이며 呪言이라 하였다(37).

김사염은 處의 훈은 ‘곧’ 容의 훈은 ‘중’, 따라서 ‘처용’은 ‘곧중’이니 ‘곧’은 ‘花·龍’의 고어 ‘구·구소·굴’과 동일하다고 하면서 ‘중’은 容 즉 ‘顔’이니 처용의 어의는 ‘龍顔→龍顔의 假面을 쓴 사람’이니, 龍顔의 假面을 쓰고 熱病神(魔波旬)을 쫓는 사나이의 뜻이 된다고 했다(56).

강신항은 처용이 ‘제용’, 나아가서 ‘중’, ‘춤’이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次次雄=慈充=處容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慈充=處容=중의 공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삼국유사」의 기록을 그대로 믿고, 「계림유사」의 ‘龍日稱’을 근거로 龍=處容=稱인데 고대국어의 동일어를 一字 또는 二字의 한자로 사용한 예가 많으므로 龍을 뜻하는 단어로 ‘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일음절의 단어가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고 싶다고 했다(84).

김종우는 ‘容’字를 ‘處’字 밑에 붙이게 된 그 心意는 龍을 길이길이 잊지 않고 기념하겠다는 충정이 상당히 작용하면서 붙여진 것이 아닌가 하였다(110).

설성경은 ‘處’와 ‘容’이란 두 개의 의미가 복합된 것이며, ‘處’의 뜻은 ‘터’이므로, ‘처용’의 어의를 ‘터주신’, ‘텃대감’으로 보았다.

이어령은 처용의 어의가 하늘 위로 추켜 올리는 ‘추다’라는 동사에 음을 붙여 명사형을 만든 추움의 차자로 오늘날 ‘춤’이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180).

엄원대는 ‘철륵 백힌 놈’이나 ‘개(犬)철륵 백혔나’에 나오는 ‘철륵’을 탈로 보고, 철륵 - 철음 - 처음 - 처용으로 보고 있다(114).

최철은 松村武雄이 처용의 어의를 ‘神名’이라 한 데 대해 神名の 대부분이 발생이 오래며, 종교적 대상과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語辭와의 비교로서 그 본의를 파악함이 힘들고, 同一語辭 변화의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 비교 고찰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서 처용이란 얼굴容]을 붙인다[處]란 신의 기능에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보았다(227).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처용’의 어의를 ‘치용·제용’의 차자, ‘중·충’의 한자음, ‘처용=충으로 龍의 뜻’, ‘慈充=處容=중’, ‘철륵 - 철음 - 처음 - 처용’, 충을 ‘추다’의 명사형 ‘추움의 차자’로 보는가 하면, 또한 ‘고시늯·고시레’의 표기, ‘곧춘’, ‘龍을 길이길이 잊지 않고 기념 하겠다’는 충정의 작용, ‘터주신·텃대감’, ‘얼굴[容]을 붙인다[處]란 신의 기능에서 이름이 붙여진 것’ 등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전자가 처용의 음과 관련한 설명이라면, 후자는 처용을 뜻풀이하여 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양주동은 人形 혹은 가면이 생기기 전에 처용이란 인물명이 先存하였다고 보고, 처용을 단순한 음차로 보았다. 「악장가사」에 ‘處容’의 표기가 ‘제용 - 처용 - 체용’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양주동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치용 - 제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강신항은 처용을 ‘중’으로 보았다. 김용구와 강신항은 ‘龍日稱’을 그대로 인정하여 처용을 ‘충’ 또는 ‘치용’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김용구는 처용을 용의 뜻으로 보았고, 강신항은 중의 뜻으로 보았는데 김동욱은 역시 중·충의 한자음으로 보아 강신항과 같은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신항의 견해에 대해 김완진(85)은 처용의 뜻이 샤머니즘에서 사제자를 ‘중’이라 부르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상 처용을 중이라

볼 수 없고, 처용이 좋이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국어에서 유기자음과 무기자음의 구별이 없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대립이 없었다면 한자음의 유기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의심스럽고, 고문헌에 용을 ‘미르’라고 한 것으로 보아 稱은 彌의 誤記로 보아진다고 했다.

또 이기문(86)은 김완진의 견해와 대체로 같다고 하면서 ‘處’는 훈몽자회에 ‘살처’로 천자문에는 ‘바라처·곧처’라 되어 있으므로 이런 면을 살펴 처용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했다.

이 보다 앞서 이기문의 견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이는 김사엽이다. 김사엽은 處와 容을 혼동하여 처용의 뜻이 가면을 쓰고 열병신을 쫓는 사나이가 된다고 했다. 또한 엄원대는 그 지방의 방언을 조사하여 철름을 ‘탈’로 보아, 처용 ‘탈’과 관련지었다. 그리고 지헌영의 ‘고시늯·고시레’나 설성경의 ‘터주신·틔대감’, 최철의 ‘얼굴을 붙인다’ 김종우의 견해 등은 呪言 내지 신의 기능면에서 파악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나름대로 특색있는 견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어령의 견해는 기발한 착상이긴 하나 타당성이 결여된 듯하다.

2. 문학적 관점

〈처용가〉를 문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 이는 정병욱, 황폐강, 윤영옥, 최재남 등이다.

정병욱은 모든 배경적 요소를 배제하고 자기목적적으로서의 〈처용가〉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는 10구체 향가의 원래 명칭이 사뇌가이고, 수도문학인 반면 8구체 향가인 처용가는 지방문학으로 metaphor의 결여 즉, tension이 결여된 문학이라고 하고, 텐션이 없는 시란 조잡하게 마련인데, 향가 중에서 처용가만큼 조잡한 문학이 또 달리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8구체 처용가에서는 수도문학이 지니고 있는 숭고하고 우아한 것에 대한 저항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오히려 숭고하고 우아한 것이 허무하고 粗野한 것으로 ‘轉落’된 모습으로 나타나 희극미를 보여준다고 하였다(82).

황폐강은 가장 ‘淫蕩’하고 ‘粗雜’한 듯한 3·4·5·6구의 표현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차라리 다음에 오는 7·8구의 높은 승화를 준비하고,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처용가가 覺月로 상징된 천상적 이미지와 姦淫으로 나타난 지상적 현실 사이에는 聖과 俗으로 대비될 만한 엄청난 거리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양자의 대립을 해소할 그 어떤 계기도 찾아질 것 같지 않은 불안이 있어, 이 불안이 문학적인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처용가는 이와 같은 극도의 대립이 기대키 어려웠던 어떤 계기를 만나 높은 차원으로 지양된 세계를 보여 준다고 했다(108).

윤영옥은 황폐강의 관점과 동패를 이루는데 처용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밖에서의 ‘歌舞於市와 안에서의 역신이 그 아내를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唱歌作舞而退’한 것과는 상관된다고 하고, 이것은 고려 〈처용가〉에서는 羅睺에 比했는데, 이런 태도는 붓다의 설에 의하면 忍辱이 겠으나 힘있는 자의 관대함이라 했다. 그리하여 〈처용가〉는 처용 스스로가 역신과의 대립에서 물러서려 할 때 역신이 굴복해서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만들므로 노래에 呪能을 갖게 한 것이라 하고, 표현은 체념적 언사가 아니라 힘있는 자의 관용이라 했다. 그리고 이 노래 자체에 呪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처용이 될 수 있는 醫巫에게 呪能이 주어지도록 顯現된 神性인 처용에게 呪能 이 있다고 했다.

최재남은 처용가 제8구의 해독을 시적 화자의 태도와 관련시켜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로 보되 체념의 자세로만 이해하지 않고 적극적

인 관용으로 보아 1~4구까지를 현실적 상황, 5~8구까지를 내면적 갈등의 구성으로 파악하여 처용가의 미학은 적극적 화해 혹은 적극적 관용에 그 핵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善自寬譬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237).

처용가의 문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은 정병욱과 같이 배경설화를 무시한 채 노래 자체만 대상으로 하느냐, 황패강·윤영옥 등과 같이 배경설화를 함께 고찰하느냐의 관점의 차이이다.

정병욱의 주장에 대해 최진원은 처용가가 조잡하다는 견해는 수궁이 간다고 하면서 8구체가 허무·조잡한 것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 사뇌가의 세련성에서 후퇴하였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단적으로 전락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고 하였다(81).

이에 대해 정병욱은 ‘전락’이란 승고한 것의 변용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81). 정병욱이 10구체 향가를 首都文化의 하나로서 신라 시가를 대표하는 其意甚高·詞淸句麗한 신라의 귀족문화으로 보고, 8구체 향가는 수도문학권의 어느 지방문학의 하나라 했다. 그리하여 수도문학이 승고하고 우아한 것에 정착되고 있는 동안 지방문학은 회극미와 아이러니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여 다음 시대인 고려에 와서는 오히려 처용가적인 요소를 물려 줌으로써 별곡문학의 성격을 형성시킨 것이 아닌가 하였다.

여기에서 10구체라고 하는 향가 형태의 노래를 수도문학으로 8구체의 처용가·모죽지랑가를 지방문학의 하나로 단정하여 획일화하는 것은 객관성의 결여와 작품 자체의 성격 규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회극미와 아이러니의 요소가 고려 처용가에 전승되어 왔다고 보다는 고려로 이어진 것은 辟邪進慶의 의미라 볼 수 있다. 향가 처용가의 7~8구가 고려 처용가에는 생략된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황패강·윤영옥·최재남은 정병옥의 관점과 다른 입장인데, 작품 자체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배경설화의 검토와 병행하지 않고 진정한 해석의 어려움을 말해 주고 있다. 황패강은 불교적 관점에서 문학적 해석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처용가가 생성된 자리에 놓고, 생동하는 것으로서 파악할 때 불교적 인간관에 바탕을 둔 美構造라 하였는데, 역시 처용가의 생성을 불교적 관점만으로 단정한 것도 문제점은 있는 것이다.

윤영옥은 처용가 노래 자체에 呪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醫巫에게 呪能이 주어지도록 顯現된 처용에게 呪能이 있다고 한 점이 특이할 만하다.

최재남은 처용가의 배경설화를 제외하고 시의 구성을 요약한다고 하면서도 처용가의 미학을 황패강의 불교적 인간관에 둔 관점을 수용하여 적극적인 화해 혹은 적극적인 관용으로 보았다.

처용가의 문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은 정병옥의 견해와 황패강의 견해가 대표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정병옥의 견해와 같이 처용가 작품 자체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그 작품의 타당한 해석에 근접할 수 있는 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3. 민속신앙적 관점

처용가 및 그 배경설화에 대한 민속신앙적 관점에서의 탐구는 어느 분야의 관점에서보다 많이 이루어졌다. 이 분야의 주된 논의는 처용을 神格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처용을 巫覡으로 보느냐, 또는 巫이면서 神의 대상으로 파악하느냐, 신격의 가면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처용을 神格의 대상으로 파악한 이는 손진태·김재철·이능화·김영

수·문상희·설성경·최철 등이다.

손진태는 ‘처용랑망해사’조를 망해사연기전설과 처용설화로 나누어 전자를 불교도의 擬作한 설화로, 후자를 문신의 연기전설로 보았다. 그리고 처용을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 함은 처용이 비실재 인물임을 말하는 것이라 하고, 그리고 연기설화는 반드시 숭배의 대상이 있는 뒤에 전설이 후세에 발생된다고 하여 처용전설의 발생 이전에 벽사진경의 주술적 가치를 가진 문신 처용의 화상이 민속상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또한 처용이 문신인 이상 처용가는 처용 작이 아니고, 역신이 처용처를 범함은 원시인의 심리로 해석해야 하며, 신이 사람을 범한다는 것은 역신이 처용의 처에 憑附하여 병을 주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역신을 痘神으로 보았다(14).

김재철은 처용이 문신과 관련있다고 하여 역시 神格의 대상으로 파악하였다(21).

이능화는 帖像辟邪하는 門神, 또는 魚鼻大王 및 鉢里公主說話와 관련해서 해석하였다.⁷⁾

김영수는 처용을 鍾馗·韋將軍·나태·박수와 관련시키고, 역신의 존재를 動土病, 곧 ‘터알이’에서 찾아 客鬼病·邪鬼病과 동계로 파악하여 처용무의 행사가 태고시대부터 있었으리라 추정하였다. 그래서 처용을 辟邪大神 토지신의 권속으로 파악하여 ‘터알이’병에 걸린 환자집에서 역신을 구축하기 위한 춤이 처용무이고, 처용무에서 진술된 것이 처용가로 이 노래는 발원문의 성격인 기도문이라 했다(57).

문상희는 처용문학·처용설화·처용가면 등의 여러 가지 표상의 밑바닥에 처용신앙이 깔려 있다고 하면서, 이 처용신앙은 처용이란 신격의 힘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치는 원시적 주술신앙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 처용신앙이 역사화한 것이 처용설화이고, 처용신앙

7) 이능화, 조선무속고, 「계명」 19호, 守門將, 1927.

이 행위적으로, 곧 제의의 양식으로 표현된 것이 처용가·처용무라 했다.(91)

설성경은 처용설화는 장성 처용설화와 함께 미모의 여인을 사이에 둔 남성간의 갈등으로 다루면서 처용을 용신이면서 터주신으로 보았다(106).

최철은 처용화상이 사귀를 물리치는 문신의 기능을 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처용의 처를 침범한 역신은 단순히 미모의 여성을 탐한 인물이 아닌 것 같고, 갖은 질병과 재앙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역귀로 해석하고, 처용의 작자는 전설적 인물인 용왕의 아들 처용으로 되어 있지만, 노래 내용은 백성들 속에서 전해 오는 민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227).

처용을 신격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역신이 처용 처를 범하는 것을 처용 처가 병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손진태는 처용의 배경설화를 민속적인 관점에서 고구려 최초의 연구자로 처용을 비실재 인물의 민속상의 문신으로 보고, 처용가가 처용 작이 아니고, 역신을 痘神으로, 역신의 범함을 처용 처에 역신이 憑附하여 병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배경설화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초기의 연구로서 상당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용가를 고려의 所産으로 본 것과 痘神을 痘疫神이라 한 것은 誤見이거나 굳게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16). 이후의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손진태의 업적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처용을 巫覡으로 파악한 이는 김동욱·김원경·김택규·이상비·임기중·김승찬 등이다.

김동욱은 처용 설화를 무격사상과 관련하여 보고, 처용은 용신사제이고, 처용 처의 간통은 異客款待와 결부되어 惡神을 축출시키는 것이 아

나라 마음을 화락하게 하여 보내려는 후전풀이와 같은 것으로, 즉 巫覡 전설로 보았다(52).

김원경은 처용가는 초자연적·주술적·샤먼적 요소가 많다고 하고, 이 설화는 우리 나라 무속적 신앙에서 많이 보이는 ‘문신연기’의 일종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런데 연기전설은 대상이 먼저 있고, 후에 전설이 거기에 맞추어 발생한다고 하면서 옛부터 잡귀를 막는 토속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역신을 우대하고, 회유하여 병고로부터 벗어나려 했는데, 이것이 곧 굿 행위이고, 이 굿의 주관자인 무당이 처용이라 했다(74).

김택규는 개운포·동해용·망해사 창건·용자 처용 등의 제 요소를 용신신앙이 산악사원으로 습합되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즉 개운포의 처용도를 중심으로 관행되어 온 용신제의 전설로 이해하고, 동해용신 그 7자를 성역 처용도 일대의 제사집단으로 보았다. 따라서 처용을 동해 용신으로扮한 主巫에 종속한 助巫로서 가무에 뛰어난 倡夫巫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였다(107).

이상비는 처용을 당시의 동부지방의 男巫였는데, 헌강왕이 巡幸할때 각 지방의 駕前歌舞儀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고, 처용 처는 바리공주로 죽음의 열병에서 소생하였는데, 그것이 구전되어 뒷날 醫巫歌에서 소생신으로 신앙되었다고 하고, 죽은 사람이라도 이 바리공주를 불러 회생시키는 굿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리고 처용 처와 역신의 간통은 열병이며 역신이 사람으로 변하여 간통하였다는 말은, 이러한 발병의 구상적 표현이며, 역신이 다시 제 모습을 들어 무릎을 꿇은 것은 驅鬼의 歌舞가 보이는 효험으로 상징된다고 했다(105).

임기중은 처용이 男性 民族呪師인데, 作舞而退의 발상은 그의 처에게 찾아든 손님(열병)을 자기한테로 끌어들이는 속죄양적인 것으로서 代贖의 방법에 의한 열병퇴치의 관념에서 기인된 것이라 하며, 처용가의

발상은 治病에서 온 것이라 했다(151).

김승찬은 처용이 개운포에서 베풀어진 동해 용신제의에 참가했던 사제자 가운데 한 남무이거나 주무에 종속한 助巫로서 가무에 능통했던 인물이고, 처용가는 서사무가 속에서의 단편적 서정가로 볼 수 있을지 언정 결코 呪詞가 될 수 없다고 했다(155·183).

처용을 巫覡으로 파악한 입장에서는 처용관계 이야기가 치병을 위한 곳이라고 보는 견해에는 처용을 신격의 대상으로 파악한 입장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치병을 위한 행위에서의 처용의 역할이 다르다. 신격이 아니라 제의의 주관자인 무당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처용가를 일종의 呪歌로 보고 역신의 퇴치도 異客款待나 회유의 방법으로 처용이 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김승찬은 呪詞가 아니라 서정가라 한 점이 다르다.

처용을 巫覡 내지 神格의 대상으로 파악한 이는 김열규·현용준·장주근·서대석 등이다.

김열규는 처용전승이 복합적인 신성전설이라 하고, 용신의 아들로써 표상되는 신이로운 출현에서 비롯된 처용의 삶이 마침내 역신을 퇴치하는 의무주술사 및 문신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에 관한 얘기가 불철 연기설화와 교착되어 있음에 복합성의 정체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전자는 Hero-Story의 유형을 연상시킨다고 하면서,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곧 역신을 물리치고자 하는 노력이 가무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 가무는 의무적(醫巫的) 주술이라야 하고 처용가는 주가라야 한다고 했다(63).

현용준은 용신출현설화와 개운포지명전설에 용신호국사상 및 神人同態觀이 작용하여 용자보정설화가 이루어지고, 역신의 傳疫 관념과 그것을 물리치는 驅疫神의 관념이 이에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 처용설화라 하였다(66).

장주근은 처용가가 일인칭으로 일관되어 있기에 무당노래의 「공수」 즉 신탁으로 보아, 이것을 무가라 했다. 그리고 여기서 무당을 사제자인 동시에 벽사신인 처용이라 했다(92).

서대석은 처용이巫인 동시에 巫의 神이기도 하다고 하고, 처용가는 처용신의 유래를 설명한 서사무가에 삽입된 주술무가라 했다. 그리고 처용가가 呪歌이기에 주술적 표현에서 오는 문학성의 결여는 당연하다고 했다(109).

이와 같이 처용을 巫覡 및 신격의 대상으로 파악한 입장에서는 처용가를 呪歌 또는 巫歌로 보는 것은 민속신앙적 관점에서 보는 여타의 논자들과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처용의 양면성을 인정함으로써 처용 정체 파악의 고착화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 면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그런데 세부적 관점은 다소의 차이가 있다. 서대석이 언급한 바와 같이 처용의 양면성에 대해 현용준은 神人同態觀이라 한 데 대해 서대석은 神을 인격화한다든지,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견해가 아니라 신과 인간의 이중의 의미라 했다. 여하튼 처용의 정체에 양면성을 부여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처용을 신격의 가면 내지 그 행위를 연극적인 관점에서 고구한 이로는 조운제·송석하·김용구·장주근·이두현·이상일·조동일·박진태 등이다.

조운제는 처용가가 신라시대 민요임이 틀림없다 하고, 처용무에 가면 을 사용하였는 듯하여 금일의 산대도감과 같이 가면을 쓰고 노는 놀음을 한데 모아 通脈없는 한 연극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하였다(8·17).

송석하는 가면의 조형미술상, 무용의 동작상 처용무와 산대놀이는 별개의 것이라 하고, 이 설화의 발생이 벽사진경의 사상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이 설화가 연극 또는 무용으로 발전했음을 암시하였다(25).

김용구는 삼한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원시가면무가 신라에 계승되어, 여기에 불교적인 교리와 용신사상이 결합되어 신라대의 처용무가 만들어졌는데, 이 儀典의 합리화를 위한 것이 처용설화라는 것이다(42).

장주근은 원초에는 신화이던 것이 발전해서 緣起譚 部類의 전설과 신화의 혼합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歌’부분 위주의 발전이고, ‘舞’부면에서는 원초의 祭儀上(假面)舞가 후세의 궁중 逐鬼 의식으로 변화·분화하여 발전되어 온 것이라 했다. 즉 처용 가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용설화가 형성되었다고 하고, 그것을 ‘가면→인격신화→설명성→설화형성’으로 도식화했다(54).

이두현은 처용설화가 원초 인류가 가졌던 벽사가면의 인격신화와 그에 따른 해석 설명에서 형성되었으리라는 의견은 유력한 시사라 하면서, 처용은 門帖處容之形으로 邪惡을 물리치는 「辟邪」의 呪力을 가질 뿐더러 일면 「제용」으로써 사악을 짊어지고 대신 버려짐으로써 善을 맞이하게 하는 「進慶」의 힘을 갖는 복합적인 신격이라 했다. 그리고 일인무에서 출발한 처용무는 이인무로 되고 「악학궤범」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오방처용의 일대 종합가무극으로 집대성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88).

이상일은 처용가의 전승이 전개되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은 한국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고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고대인들의 사유가 변천해 온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고, 그것을 ‘초자연적존재→동물형태→인간형태’의 과정에서 처용의 龍子라는 것은 神體顯現이 인간화되어 가는 과정에 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했다(93).

조동일은 처용설화를 사람인 신격의 가면을 쓰고, 그 신격의 춤을 추는 곳으로 보았는데, 이 곳은 국가적인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거행된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재앙은 역신으로 상징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처용은 여름, 역신은 겨울의 상징인데, 한 여성을 두고 두 남성의 싸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처용극이라 하여, 처용극은 귀족의 연극이며 귀족의 탈춤이라 하였다(119).

박진태는 역사적 사실에 관련시켜 현강왕과 진골귀족은 처용굿이라는 새로운 연극 형태를 만들어 처용을 서라벌 터주신으로 삼아 처용이 역신을 내쫓고 역신을 막듯이 서라벌 안의 반항세력을 진무하고 서라벌 밖의 반란세력을 진압하려 했던 것으로 보았다(164).

이와 같이 처용을 신격의 가면 내지 그 행위를 연극적인 관점에서 고구한 이들의 주장을 보면 처용가면희의 입장에서 연극으로 발전한 형태의 모습으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조운제는 처용무에서 가면희 모습을 읽었고, 그것이 연극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한 초기의 논문으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조운제의 논문을 발전시킨 것이 김용구이고, 이것을 장주근에 와서 구체화되고, 이두현, 이상일도 같은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조동일에 와서 처용가무에 관한 연극사적 고찰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다. 조동일은 이두현이 처용가무가 연극인가 하는 문제는 해박한 자료 인용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연극으로서의 구조와 특징은 물론 그것이 당시 사회에서 가졌던 기능 및 연극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같은 데 관한 고찰도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처용가무와 후대의 가면극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점 등을 풀면서 처용가무 연구가 지녀야 할 요긴한 내용을 갖추려 하였다. 박진태는 연극학적 관점에서 고구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처용가를 해석하였다. 그런데 처용이나 역신을 모두 來訪客이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지닌다고 하면서 처용이 새로이 침입하는 역신을 물리치는 것으로, 이는 곧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파악한 점은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다.

4. 불교신앙적 관점

처용가를 불교신앙적 관점에서 해석한 학자는 前間恭作·안자산·양주동·황태강·김사엽·김종우·김갑기·조평환 등이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 경향은 前間恭作·안자산·양주동의 연구와 황태강·김사엽·김종우·김갑기·조평환 연구가 다소 차이가 있다.

前間恭作은 처용가 해석을 바라문의 숙명관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10).

안자산은 처용신화는 신라 때의 전설이 儼戲와 합해져 佛教說로 修裝된 것이니 그것이 고려 때에는 百戲의 일종으로 된 것이라 하고, 처용은 羅候星神을 형용하여 作名한 것이며, 설화의 출처는 헌강왕대의 日蝕사건에서 시작된 것이라 하였다(15·20).

양주동은 고려 〈처용가〉의 “天下太平 羅候德”과 「삼국유사」 처용설화 “忽雲霧冥暘”이란 구절에 착안하여 처용이 출현한 때를 일식 직후로 보아 처용을 일식신 羅候의 화신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서 羅候 불교의 忍辱苦行으로서 처용설화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32).

황태강은 처용이 호불호국적인 龍子의 형상, 즉 용신사상의 신라적 발상을 빌어 실현되었기에 신라적이라 하였고, 이러한 입장에서 처용설화를 이해하고 처용가 구조를 고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처용가〉 끝 구절의 해석을 가장 추한 보복으로 바꾸어질 수도 있었던 인간적인 감정을 지양하고 垢穢遠離의 眞如로 승화된 천상적 이미지를 실현했다고 했다(53·104).

김사엽은 용신이 불교에 어떠한 존재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신라인은 어떻게 해석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상세히 고찰한

다음 향가 처용가가 순전히 불교사상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처용무는 魔를 降却시키는 용의 기능의 한 표현이며 망해사는 처용의 거처요, 처용무에 따르는 諸道具를 保藏하는 곳이라 했다(56).

김중우는 처용을 동해용왕의 아들, 山海精靈으로 보지 않고 奇形怪服을 차려 입은 사만으로 보아, 처용무는 동해변 울주지방에 유포된 무속 제의 중 용신을 위한 용무(龍舞)이었을 것이라 하기도 했으며, 또한 처용이 자기 처를 빼앗기고도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佛典에서 말하고 있는 法行龍이 취한 행동이라 할 수는 없을까 하고 역신은 阿修羅와 같은 악의 편에 속하는 신이고 처용 처는 佛典에서 말하는 帝釋과 같은 사람이었다 하면 어떨까 하였다(101).

김갑기는 처용가에 대해서 처용가의 사상적 배경과 처용의 정체분석으로 대별하여 그 사상적 배경으로는 불교의 帝釋信仰을 들었고, 처용의 정체분석을 위해 동해 용왕과의 관계를 살폈는데, 곧 동해 용왕은 신라인의 의식 속에 잠재한 英主 문무대왕의 守護聖靈으로 보고, 이는 용신하생 및 龍人交合說과도 일맥한다고 했다(144).

조평환은 불전에 나타난 호불호국적 용신사상의 영향으로 신라 특유의 호불호국용신사상을 전개시켜, 이 영향으로 처용가가 나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처용가〉 끝 구절의 해석을 체념이 아닌 달관의 경지로 보았다(232).

불교신앙적 관점에서 〈처용가〉를 해석한 이 중에 前間恭作은 바라문의 속명관에 관련시키고, 한자산·양주동은 역신의 행위를 라후라와 관련하여 해석했다. 그런데 이들은 〈처용가〉 해석을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초기의 글인 점에 의의를 부여해 볼직 하지만 불교신앙과 체계적인 접목을 시도하지는 못했다. 이에 비해 황패강·김사엽·김종우·김갑기·조평환은 용신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상적인 측면에서 고구하여 용신

신앙과 불교신앙으로 체계적인 고구를 하여 〈처용가〉를 한 차원 높은 사상적 전개의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처용설화를 불교신앙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의 고착화로 여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다. 처용설화에 내재된 전반적인 요소가 불교적 요소만 아니라 엄연히 무속적 및 역사적 요소 등의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음을 간과해 버리고 말았다.

5. 역사·사회사적 관점

역사·사회사적 입장에서 연구한 학자로는 이은상·문일평·장덕순·김정업·이우성·이용범·박노준·최성호 등이다. 이들의 논의는 처용설화를 허구적 사실이 아니라 신라 말기의 역사적 현실과 결부시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은상은 처용이란 인물이 동해용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그대로라면 신화 속의 인물이고, 그렇지 않고 추리적으로 抑測이라도 한다면 개운포에 왕이 行駕하였다는 날에 운무가 冥暗하였다가 걷히었다 하였으니, 아마 그 날에 동해 漁人들이 파선이나 당하고 해엄쳐 해변에 대인 것이 그 사실의 본이 아닐까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다면 처용은 漁人 중의 한 사람일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7).

문일평은 처용설화에는 신라 말기의 퇴폐적 향락생활의 단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처용의 관대를 한국 민족성의 一端發露로 보았다(13).

장덕순은 처용랑이 애처를 빼앗기고도 凜然히 夜半街頭에서 홀로 노래와 춤으로써 분노를 새기면서 깨끗한 체념과 함께 울적을 읊조린 것도 화랑적인 신라 신사의 기품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48).

김정업은 처용설화는 개운포 지방의 남방계 이민족이 신라에 귀속하

는 것을 설화한 것으로 그들의 용신사상이 근원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68).

이우성은 처용설화를 신라 말기의 역사적 현실과 결부시켜 해석하였는데 동해용을 신라 동변에 있는 반중양적 호족의 상징으로 보았으며, 신라 망국을 미리 경고한 서울 주위의 제신들을 신라 하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6두품 계층의 상징으로 보았고, 처용 처를 간통한 역신은 타락된 화랑들의 행위로 「병든 도시」의 상징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호족의 자제인 처용이 그 처의 간음 행위를 보고 미련없이 가무하여 물러난 것은 ‘신라의 政略에 보내지는 야유’라 하고 지방호족이 중앙귀족에 대한 갈등을 노래한 것이 처용가라 했다(70).

이용범은 처용의 정체를 밝히는 실마리가 용이라 하고 용에 대하여 항해와의 관계를 밝히고, 다시 이 설화 전반의 해석을 「삼국유사」는 물론 「삼국사기」, 처용에 대한 고려 말 문인들의 설명을 빌어 자연인이면서 특수한 용모의 소지자인 처용에 부각시키고, 이는 필시 당나라 말엽 廣州에서 揚州 일대까지의 지역에서 해상무역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슬람상인의 漂着傳說일 것이라 하였다(71).

박노준은 처용설화의 동해용이나 처용을 모두 甌이라 하고, 처용설화를 현강왕대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신라 말기의 현강왕대는 변영과 호화를 구가하는 한편 유락·탐색·퇴폐의 풍조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시대로 처용가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 빚어낸 가요로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98).

최성호는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당대의 禮俗史, 가족제도사, 女俗史, 부락관습사 등을 고찰하여 처용을 용성국인 변방족이면서 男巫로 보았고, 처용 처는 토착족 무녀 출신의 유녀라 하고, 역신은 토착족의 男巫로서 평소에 처용 처를 흠모하거나 서로 잘 알고 지내왔던 자라 하였다(139·176).

역사·사회사적 입장에서 처용설화를 연구한 것을 보면 처용 정체 파악에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처용을 외래족으로 다루고 다른 하나는 국내인으로 파악했다. 나름대로 역사적 사실에 관련시켜 고증했다고 할 수 있다. 처용설화에 나타난 가능성의 세계를 역사적 사실로 현실화해 줌으로 설화와 사실의 깊은 관련성, 역사적 사실이 설화로 변이되어 온 점을 부각시킨 데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처용설화를 역사·사회사 입장에서 볼 수는 있으나 하나의 확정된 역사적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문학의 세계가 허구적 진실이라 할 때 창조된 삶의 세계와는 문학의 속성을 간과해 버릴 위험에 빠질 우려성이 있는 것이다.

6. 설화적 관점

처용가 연구를 설화적 관점에서 접근한 이로는 김태곤·설성경·김학성·윤영옥 등이다.

김태곤은 처용에 관한 삼국유사의 문헌자료가 용신신앙을 중심으로 한 신화의 문헌 정착된 것으로 보고, 이 정착 과정에서 많은 윤색·첨가·삭제·와전된 것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하여 처용에 관한 문헌 자료를 부분적으로 논하기 전에 전체적인 성격 파악, 그 구성체계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94).

설성경은 울산 처용암설화와 장성 처용암 설화가 미모의 여인을 사이에 둔 남성간의 갈등이라 면에서 꽃감설화와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고 하였다(106).

김학성은 처용설화가 민담 성격의 순수 민중설화로 출발하여 새로운 이질적인 모티브를 수용하면서 복합설화로 변이 정착된 것이라 하고, 처용은 설화 형성 당대(헌강왕 이전)의 실존 인물이며 강자(권력상승)

에게 침해받는 민중(약자)의 상징적 인물이라 하면서, 처용가는 민요격 향가로 민중의 비극적 현실을 골계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 하였다(128).

윤영옥은 처용관계설화가 역사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산물인 설화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 하고, 처용은 호국용신에서 수문신으로 모습을 바꾸며, 역신 퇴치의 구역신으로도 변모하며, 또 호국신의 모습과 동시에 생산신의 자태도 나타내 준다고 했다. 그리고 처용관계설화는 병자를 앞둔 의무(醫巫)가 처용신의 신성이 현현하기를 비는 일종의 의식으로도 이해되며, 의무 신격의 근원을 서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처용가는 서사의 핵이 되는 것이지만 처용을 관념적 소산으로 볼 때 후인의 작업 수밖에 없다고 했다(132).

설화적 관점에서 처용가 연구를 주장한 학자들은 대개 처용설화를 부분적인 입장에서 보는 견해를 지양하고 전체적 성격 파악과 많은 보조 학문을 활용하여 연구해야 함을 피력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처용설화가 변이과정을 겪어 형성되었는데, 그 연원이 헌강왕 이전이라는 데는 김학성과 윤영옥의 견해가 일치하나, 김학성은 처용을 설화 형성 당대의 실존 인물 내지 강자에게 침해받는 민중의 상징적 인물로 보았음에 비해 윤영옥은 처용을 관념적 소산으로 보았다. 김학성·윤영옥의 연구는 같은 관점에서 진행되었지만 결론의 도출은 상반되게 나타났다. 처용가 연구에 대해 여타의 단선적인 접근에서 과감히 탈피해 종합적인 연구로 천착한 데는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윤영옥은 관련 문헌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한 데 비해, 김학성은 실증적인 근거에 의해서라기 보다 가설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7. 심리학적 관점 및 기타

심리학적 관점에서 처용가를 연구한 이로는 서정범·김광일·정상균 등이다. 서정범·김광일은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정상균은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처용설화를 분석했다.

김광일은 처용설화를 개인 심리의 입장과 그것이 사회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양상으로 나누어, 전자의 측면에서는 이 설화의 내용이 외디프적인 모티브가 있는 것으로, 후자의 입장에서는 외디프스 콤플렉스의 승화로 보았다(95).

정상균은 처용설화는 의식(용자)으로서 무의식이 본능(역신)을 제압하고, 모계의식을 극복한 부계의식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준 예라 하고, 처용가는 최초로 여성과 작별을 선언한 노래로 새로운 남성 세계의 전개와 남성 문화를 꽃피우고 남성적 세계를 노래하는 정신세계라 하였다(156·173).

이들의 연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 사유를 처용설화에 적용시켜 해명하려는 데는 하나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심리학 용어의 고정된 틀에 맞춘 듯한 해석의 비합리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의 처용가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에는 이어령⁸⁾, 岡山 善一郎(165), 김학주(62) 등이 외래 요소와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황패강(104), 엄원대(114), 조철환(171), 김경수(184), 김진영(187), 윤영옥(239) 등의 연구사적 검토도 있다.

처용가의 형식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은 처용가 단독의 형식을 다룬 논문은 없고 향가 형식에 대한 언급이나 처용가를 해석·해독하는 과

8) 이어령, 처용과 헤라클레스의 비교, 한국인의 신화, 서문문고, 1972.

정, 또는 다른 분야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처용가 형식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해독 과정에서 언급한 것을 살펴 정리해 보면 대체로 각 행 2분절한 4행 4구체, 4구체(민요격)를 1연으로 한 2연 시가, 8행의 8구체, 3장 6구의 형식, 後句亡의 定型에 속한 노래, 3구 8행시 등과 같다.

처용가를 각 행 2분절한 4행의 4구체로 처리한 이로는 권덕규(3), 鮎貝房之進(2), 小倉進平(1), 유창선(26), 신태현(30) 등 초기 학자들이다. 그런데 鮎貝房之進는 앞 여타의 학자들과는 달리 다르게 분절했다. 4구체(민요격)를 1연으로 하는 2연의 형식으로 파악한 이들은 성기옥⁹⁾ · 김학성(128) · 김준영¹⁰⁾ 등이다. 이들은 8구체 형식은 인정하면서도 전 · 후 각 4구가 통사론적 의미구조에 있어서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향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처용가를 김학성은 민중에 의해 창작 향수된 민요격 향가¹¹⁾ 즉 민요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런데 김준영은 8구체가 4구체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4구에 2구가 첨가되고, 첨가된 6구형에 다시 2구가 첨가될 수도 있다고 했다.

8행의 8구체로 보는 이는 金澤庄三郎(1) · 조운제(22) · 양주동(29) 등이다. 조운제는 8구체가 10구체에서 후구 2구가 탈락된 것으로 보면서도 8구를 독자적인 시형으로 보았다. 반면 양주동은 향가 형식을 短型 · 略型 · 常型으로 나누고 처용가를 略型에 넣었다. 이후 대부분 처용가를 8구체로 보고 있다.

3구 6명의 형식으로 본 이는 김수업이다.¹²⁾ 3구 6명의 뜻이 6음절이

9) 성기옥, 도이장가의 장르 귀속, 국어국문학 연구 16집, 영남대, 1974, p. 23.

10) 김준영, 한국고시가연구, 형설출판사, 1990, p. 83.

11) 김학성이 유창균(한국 시가형식의 기초, 대구대 논문집 6집, 1966)의 견해를 수용 주장함.

12) 김수업, 3구 6명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68 · 69합병호, 1975.

3음보를 이루는 것이라 하고, 양주동의 해독을 약간 손질하여 “시불 불
괴 ㄷ래/밤디 노니 다가/드럿 자리 보곤/가러 내히 여라/돌흔 내해
엇고/돌흔 뉘해 언고/본디 내헨 마른/아살 엇디 홀고”로 하였다. 결
국 8행의 8구체라 할 수 있다.

후구망의 정형에 속한다고 한 학자는 김사엽이다.¹³⁾ 김사엽은 <жат
무가>가 후구망이라 적혀 있으니 8구체가 아닌 듯하다고 하면서, 처용
가는 이러한 단서가 없지만 歌意로 보아 2구의 ‘아세 내하이다마른, 바
승놀 엇메호리고’의 일부분 또는 전구를 그대로 중첩시켜 낙구로 했을
듯한 추리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정열모¹⁴⁾는 향가를 형식에 의하여 민요류·도술가류·사뇌가류
·산화가류로 나누고, 처용가를 ‘처용랑’이란 제목으로 도술가와 함께
도술가류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초장은 첫 넷 구, 중장은 다섯째·여섯
째 두구, 종장은 ‘본디’라는 차사를 포함한 끝 두 구라 하여, 처용가는
‘본디’라는 차사를 가진 3장의 도술가류에 속한다고 하였다. 최철(227)
역시 정열모와 같은 견해이다.

그리고 정기호는 3구 8행시로 보았다.¹⁵⁾ 그런데 처용가가 삼국유사에
연서된 것에 대해 최정여는¹⁶⁾ 신라 향가가 거의 주술성을 띤 것이지만
처용가는 巫譜歌로서 신라에서는 가보에 얹혀 불리워지지 못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고려에 들어와 처용가가 신작되어 가보에 오를 때 원가
가 후 2구를 떼어 놓고 끼어들게 됨으로써 비로소 현가절을 취하게 된
것이라 했다.

13) 김사엽, 신라인의 용신사상과 처용가, 향가의 문학적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9.

14) 정열모, 향가연구,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에서 참
조).

15) 정기호, 신라가요 형식의 연구 - 삼국유사 소전작품을 중심으로 -, 논문집 2집,
인하대 인문과학연구소, 1976.

16) 최정여, 한국고시가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9.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처용가 형식 논의에서 부분적인 異論은 있으나 대체로 향가 형식을 4구체·8구체·10구체로 나누어 보았을 때 처용가를 8구체 형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발표된 처용(가)에 대한 연구 논문을 연구 경향별로 살펴 분류 정리해 보았다. 통시적으로 개관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 업적의 관점을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기존의 논문들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을까 염려되며, 또한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거론하지 못한 논문들도 있다.

처용(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것은 그만큼 처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복잡다기함을 말해 준다. 그러기에 어느 작품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결론이 드러났다. 그러나 의문의 해결에 부분적인 합치점은 도출되었으나 오히려 새로운 의문의 제기가 대두된 실정이다. 결국 어느 한 방법론이 처용(가)의 복잡한 현상에 대해 심층모형을 탐색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기술된 현상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하여 종합하는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처용의 정체 파악이 핵심인데,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먼저 처용의 語義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있어야 하겠고, 어학적 해독 뿐 아니라 그외 방법을 동원한 해독 및 노래의 해석, 그리고 처용설화의 문헌적 정리와 비판도 재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처용의 역사적 전개, 신라 처용가가 고려 처용가에 끼어든 이유, 거기서 8구 가운데 왜 6구만 끼어들었는가, 삼국유사 향가 중 왜 처용가만 연서되었는가 등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처용관계 논문목록

1. 金澤庄三郎, 이두의 연구 - 처용가해독 -, 조선휘보 4, 조선총독부, 1918. 4
2. 鮎貝房之進, 서동요 · 풍요 · 처용가 해독, 조선사강좌 1~3, 1922. 9~11.
3. 권덕균, 처용가해독, 조선어문경위, 광문사, 1923. 5.
4. 신채호, 조선 고래의 문자와 시가의 변천 - 처용가 해독 -, 동아일보, 1924. 1.
5. 이능화, 조선무속고, 守門將조, 계명 19호, 1927.
6. 小倉進平, 향가 및 이두의 연구, 경성제대, 1929. 3.
7. 이은상, 향가의 가요사적 지위, 현대평론, 1929. 3.
8. 조윤제, 삼국시대의 가무회, 신흥 창간호, 1929. 7.
9. 前間恭作, 小倉著 '향가 및 이두의 연구'에 대하여, 史學雜誌 40권 7호, 1929. 7.
10. 前間恭作, 처용가해독, 조선 172, 조선총독부, 1929. 9.
11. 高橋亭, 小倉문학박사 著 '향가 및 이두의 연구'를 읽다, 경성일보, 1929.
12. 土田杏村, 記・紀歌謠에 있어서의 신라계 가형의 연구, 국어국문의 연구 39~40, 1929. 9.
13. 문일평, 처용의 가무, 조선일보, 1929. 11. 24~11. 28.
14. 손진태, 처용랑전설고, 신생 16, 1930. 1.
15. 안자산, 처용가에 就하야, 신생 18, 1930. 3.
16. 손진태, 동경과 처용가에 취하야 - 안자산계답함 -, 신생 19, 1930. 4.
17. 조윤제, 신라시대의 가면극, 신생, 1930. 5~6.
18. 손진태, 다시 처용전설과 동경에 대하여, 동아, 1931. 7.

19. 안자산, 처용가에 대하여, 조선, 조선총독부, 1931. 7.
20. 안 확, 산대회와 처용무와 儺, 조선 201, 1932. 2.
21. 김재철, 처용무, 조선연극사, 조선어문학회, 1933. 5.
22. 조운제, 조선시가의 원시형, 조선어문, 1933. 7.
23. 최문진, 향가와 조선문학의 여명기, 신동아, 1935. 1.
24. 이 탁, 조선문자와 향가, 조광, 1935.
25. 송석하, 처용무 · 나례 · 산대극의 관계를 논함, 진단학보 2, 1935. 4.
26. 유창선, 신라의 향가 해석, 신동아, 1936. 5~9, 5회 연재.
27. 조운제, 시가의 형식적 분류, 진단학보 6집, 1936.
28. 김태준, 처용가, 고려가사, 학예사, 1939. 4.
29. 양주동, 처용가 석주, 동아일보, 1939. 10.
30. 신태현, 향가의 신해독, 조선, 조선총독부, 1940. 1.
31. 송석하, 처용무 · 나례 · 산대극의 관계를 논함,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1, 滿鮮學海社, 1942. 1.
32. 양주동, 처용가, 조선고가연구, 박문서관, 1942. 11.
33. 신태현, 小倉박사와 향가연구 - 그의 정년기념 강연에 제하여 - 춘추,
1943. 3.
34. 방중현, 서동요 · 처용가해독, 훈민정음통사, 일성당서점, 1946. 1.
35. 정열모, 새로 읽는 향가, 한글 99(12권 1호), 한글학회, 1947. 3.
36. 양주동, 처용가,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47. 4.
37. 지현영, 처용가, 향가여요신석, 정음사, 1947. 8.
38. 김형규, 현화가 · 처용가 · 제망매가 · 천수대비가 · 예경제불가 해독, 국
문학사, 우리어문학회, 1948. 8.
39. 장지영, 향가강의, 유인물, 1953.
40. 김형규, 처용가, 고가주석, 백영사, 1955. 8.
41. 이 탁, 향가신해독, 한글 114, 1956.
42. 김용구, 처용가연구, 졸업논문집 1, 충남대, 1956. 9.
43. 홍기문, 향가해석, 과학원출판사, 1956.

44. 양주동, 처용가, 조선고가연구(증보판), 박문출판사, 1957. 3.
45. 박종화, 처용가, 신라인의 恩惟, 현대문학 37, 현대문학사, 1958. 1.
46. 최종필, 처용가에 대한 문학적 고찰, 국어국문학보 1, 동국대, 1958. 12.
47. 송석하, 한국민속고, 일신사, 1960.
48. 장덕순,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1960.
49. 김승찬, 처용가 소고, 문리대학보 3, 부산대, 1961. 3.
50. 서정범, 고전문학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시론, 현대문학 75, 1961. 3.
51. 김동욱, 처용가 揶揄, 시용향약보 가사의 배경적 연구, 진단학보 17호, 1961.
52. 김동욱, 처용가 연구, 동방학지 5, 연세대, 1961. 6.
53. 황패강, 처용가고,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1963. 6.
54. 장주근, 처용설화의 연구, 국어교육 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63. 10.
55. 김준영, 처용가, 鄉歌詳解, 교학사, 1964. 2.
56. 김사엽, 신라인의 용신사상과 처용가, 權域 1, 大阪外大, 1964.
57. 김영수, 처용무와 처용가, 불교학보 2, 동국대, 1964.
58. 유시명, 처용가의 逸話 - 신라의 향가 중에서 -, 숙대신보, 숙명여대, 1964.
59. 김형규, 처용가, 고가요주석, 일조각, 1965. 3.
60. 김소강, 처용가소고, 숙대신보, 숙명여대, 1965. 4.
61. 김근수, 처용가, 교주여요, 1965. 10.
62. 김학주, 鍾馗의 演變과 처용, 아세아연구 20, 고려대, 1965. 12.
63. 김열규, 처용전승시고, 낙산어문 1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66. 3.
64. 김선기, 꽃얼굴노래, 현대문학 155, 1967. 11.
65. 전규태, 처용가, 고려가요, 정음사, 1968. 11.
66. 현용준, 처용설화고, 국어국문학 39·40 합병호, 1968. 10.
67. 박병채, 처용가, 고려가요 어석연구, 선명문화사, 1968. 10.
68. 김정업, 처용설화의 형성과, 어문학논총 8, 조선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68. 12.

69. 김종오, 옛노래 감상 - 처용가 -, 벗 13, 수도공고, 1968. 12.
70. 이우성, 삼국유사소재 처용설화의 일분석 - 고려 기인제도의 기원과의 관련에서 -, 김재원박사 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1969. 3.
71. 이용범, 처용설화의 고찰 - 唐代 이슬람상인과 신라 -, 진단학보 32, 진단학회, 1969. 12.
72. 김종오, 처용가, 수도공고교지 13, 수도공고, 1969.
73. 문덕수, 처용단장과 기타, 현대시학 9, 현대시학사, 1969.
74. 김원경, 처용가의 변천과 Shamanism에 관한 연구 - 특히 처용가의 설화성과 민속신앙을 중심으로 -, 논문집 3, 서울교대, 1970. 6.
75. 木下禮仁 역, 삼국유사소재의 처용설화아 일분석 - 고려기인제도의 기원과의 관계에서 -, 이우성 書, 조선연구연보 12, 1970. 7.
76. 황패강, 처용과 처용암, 처용춘 1, 1970. 10.
77. 김영태, 처용단장에 관한 노트, 현대시학 16, 1970.
78. 김 현, 신화적 인물의 시적변용 - 처용의 의미 -, 문학과 지성 2, 일조각, 1970. 11.
79. 서정범, 처용가의 새로운 해석, 계명 1-10, 1970. 12.
80. 서정범, 처용가고, 아세아여성문예연구 9, 숙명여대, 1970. 12.
81. 이우성 외,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 - 한국학 방법론의 검토를 위한 제1회 학술심포지움(종합토론) -, 대동문화연구(별집 1), 성균관대, 1972. 6.
82. 정병욱, 문학으로 본 처용가, 대동문화연구(별집 1), 성균관대, 1972. 6.
83. 이용범, 처용설화의 일고찰 - 唐代 이슬람상인과 신라 -, 대동문화연구(별집 1), 성균관대, 1972. 6.
84. 강신항, 처용의 어의, 대동문화연구(별집 1), 성균관대, 1972. 6.
85. 김완진,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토론), 대동문화연구(별집 1), 성균

관대, 1972. 6.

86. 이기문, ~
87. 황패강, ~
88. 이두현, 처용가무, 대동문화연구(별집), 성균관대, 1972. 6.
89. 김열규, 처용전승고 - 민속학적 입장에서 - 대동문화연구(별집 1), 성균관대, 1972. 6.
90. 김동욱,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토론), 대동문화연구(별집 1), 성균관대, 1972. 6.
91. 문상희, ~
92. 장주근, ~
93. 이상일, ~
94. 김태곤, ~
95. 김광일, ~
96. 이기백, ~
97. 고병익, ~
98. 박노준, 처용랑망해사조의 주맥, 문화비평 13, 아한학회, 1972. 7.
99. 박태순, 처용 - 영원한 한국인 - 샘터 30, 샘터사, 1972. 9.
100. 정연옥, 현대에 투영된 처용랑, 同大語文 2, 동덕여대, 1972. 11.
101. 김종우, 불교의 용관념과 처용가, 睡蓮 7, 부산여대, 1972.
102. 황패강, 처용가의 미의식, 국어국문학 61, 1973. 11.
103. 調査室, 처용가의 현장 - 개운포 -, 문학사상 14, 1973. 11.
104. 황패강, 처용가 연구의 史的 반성과 일시고, 고전문학 연구 2,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74.
105. 이상비,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 국어국문학연구 1, 원광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74. 4. 10.
106. 설성경, 처용전승의 구조적 연구, 한국민속학 7, 민속학회, 1974. 12.
107. 김택규, 회고와 전망(처용가의 발상지), 신라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4. 12.

108. 윤홍노, 날개와 처용가와와 거리, 문학사상 32, 문학사상사, 1975. 5.
109. 서대석, 처용가의 무속적 고찰, 한국학논집 2,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6.
110. 김중우, 불교의 용관념과 처용가,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75.
111. 려증동, 고려 처용노래 연구,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한국어문학회, 1975. 10.
112. 김태곤, 처용설화의 형성체계, 국어국문학회 월례발표회, 1975. 11.
113. 윤경수, 처용가의 현대적 고찰, 현대문학 253, 현대문학사, 1975. 1
114. 엄원대, 처용에 관한 종합적 고찰, 국어국문학연구 3,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1976. 3.
115. 김근수, 향가 해독의 현위치 - 주로 처용가를 중심으로 -, 도남 조운제박사 고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76. 4.
116. 전규태, 처용가, 논주향가, 정음사, 1976.
117.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토론), 고전문학을 찾아서(소재영·황폐강·김열규·조동일 편), 문학과 지성사, 1976. 8.
118. 김상억, 처용가고, 국어국문학 72·73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6. 10.
119. 조동일, 처용가무의 연극사적 이해, 연극평론 15, 연극평론사, 1976. 12.
120.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발표·토론), 향가연구(국문학논문선 I), 민중서관, 1977. 4.
121. 강신항, 처용의 어의, 향가연구(국문학논문선 I), 민중서관, 1977. 4.
122. 정병욱, 문학으로 본 처용가, 향가연구(국문학논문선 I), 민중서관, 1977. 4.
123. 이용범, 처용설화의 일고찰 - 唐代 이슬람상인과 신라 -, 향가연구(국문학논문선 I), 민중서관, 1977. 4.
124. 이두현, 처용가무, 향가연구(국문학논문선 I), 민중서관, 1977. 4.
125. 김열규, 처용전승고 - 민족학적인 입장에서 -, 향가연구(국문학논문선

- I), 민중서관, 1977. 4.
126. 황패강, 처용가의 미의식, 향가연구(국문학논문선 I), 민중서관, 1977. 4.
127. 장덕순 · 이어령 대담, 처용가, 고전의 바다, 현암사, 1977. 11.
128. 김학성, 삼국유사소재 설화의 형성 및 변이과정 시고 - 향가와 관련설화를 중심으로 -,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7. 12.
129. 김학성, 처용설화의 형성과 변이과정, 한국민속학 10, 민속학회, 1977.
130. 김금희, 처용가의 변천과정고, 어문교육논집 2, 부산대국어교육과, 1977. 12.
131. 윤영옥, 처용문헌고, 진단학보 44, 진단학회, 1978. 10.
132. 윤영옥, 처용문헌고, 영남어문학 5, 영남어문학회, 1978. 12.
133. 윤영옥, 처용가의 동경, 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12.
134. 박규신, 처용설화의 배경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대학원, 1978. 12.
135. 서정범, 처용가, 무녀의 사랑이야기, 범조사, 1979. 1.
136. 조동일, 처용가무의 연극사적 이해, 탈춤의 역사와 원리, 흥성사, 1979. 3.
137. 김원경, 처용가연구 - 처용가의 설화성과 민속신앙을 중심으로 -, 신라가요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정음사, 1979. 9
138. 러증동, 고려 처용노래 연구, 고려가요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정음사, 1979. 10.
139. 최성호, 처용가신석 - 문화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81, 국어국문학회, 1979. 12.
140. 홍재휴, 처용랑망해사설화의 校訂字辨正 - 처용랑부처의 관용, 不貞說辨正을 위한 주석적 고찰, 여성문재연구 8, 효성여대, 1979. 12.
141. 홍재휴, 처용랑망해사 설화의 신석독 시고, 余泉서병국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9. 12.

142. 홍재휴, 처용랑부처의 관용·부정설변정·효대학보 488, 효성여대, 1979.
143. 서정범, 처용가의 뿌리를 다시 캐 본다. 경희문선 4, 경희대국어국문학과, 1979.
144. 김갑기, 처용가연구, 국어국문학 82, 국어국문학회, 1980. 4
145. 김준오, 처용시학, 논문집 29, 부산대, 1980. 6.
146. 전규태, 처용가고, 한국신화와 원초의식, 이우출판사, 1980. 12.
147. 김완진, 처용가,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0. 12.
148. 최미정, 처용의 문학전승적 본질, 관악어문연구 5, 서울대, 1980. 12.
149. 송재주, 처용가의 형성연대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3,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1981. 2.
150. 현용준, 처용설화고, 민속문학연구(국어국문학회 편), 정음사, 1981. 5.
151. 임기중, 맹아득안가와 처용가,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7.
152. 홍경표, 처용, 그 인간화와 예술화의 과정 - 처용모티브의 시적 변용을 중심으로 -, 문학과 언어 2,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1. 9.
153. 강현규, '처용'의 어의고 - A Study about the Meaning of cheoyong -, 한국언어문학 20, 한국언어문학회, 1981. 12.
154. 강현규, 처용의 어의고, 논문집 19(인문과학 편), 공주사대, 1981. 12.
155. 김승찬, 처용설화와 그 가요의 연구, 한국문학논총 4, 한국문학회, 1981. 12.
156. 정상균, 처용·처용가연구, 국어교육 39·40 합병호, 1981.
157. 홍경표, 처용모티브의 시적변용 - 신라정신의 현대적 재현 -, 현대문학 325, 현대문학사, 1982. 1.
158. 박노준, 처용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1.
159. 이주순, 처용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20, 1982. 2.
160. 탁준호, 처용설화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 대학원, 1982. 2.

161. 김영태, 용신설화의 사상성,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 해명, 새문사, 1982. 2.
162. 정병현, 처용가연구, 논문집 2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2. 2.
163. 이명구, 처용가연구,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3.
164. 박진태, 처용가무예 대한 연극학적 연구, 국어국문학 88, 국어국문학 회, 1982. 12.
165. 岡山善一郎, 처용과 道祖神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대학원, 1982. 12.
166. 박춘규, 처용가의 무격성 고찰, 어문연구 36·7합, 1983. 2.
167. 최정여, 처용전후 구나의의 양상, 신라민속의 신연구, 신라문화재 학술 발표회 논문집 4집, 신라문화선양회, 1983. 2.
168. 김태환, 처용가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 대학원, 1983. 9.
169. 최 철, 처용가, 향가의 문학적 연구, 1983.
170. 설성경, 처용의 가무행위가 지닌 의미 총위, 동방학지 36·37합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3.
171. 조철환, 처용설화의 연구사적 고찰 - 삼국유사소재 기사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단국대 대학원, 1983. 12.
172. 진영환, 처용가 연구, 논문집 33집, 대전공업전문대, 1983. 12.
173. 정상균, 처용가, 한국고대시문학사연구, 한신문화사, 1984. 5.
174. 김영일, 처용설화의 무가적 구조연구 - 무가·입무의식·고려처용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 논문집(인문과학 편) 11, 경남대, 1984. 12.
175. 박진태, 처용가의 배경과 의미, 한국시가의 재조명, 형설출판사, 1984. 8.
176. 최성호, 처용가, 신라가요연구 - 배경과 사상을 중심으로 -, 1984.
177. 황패강, 처용가 연구의 사적 반성과 일고찰, 향가여요연구, 이우출판사, 1985.
178. 이경희, 처용가고 - 내용구조분석을 중심으로 -, 향란어문 14, 성신여대 국어교육과, 1985. 4.

179. 박기홍, 처용랑망해사연구, 인문연구 4, 한양대 인문대, 1985.
180. 이어령, 초월을 향한 춤/처용가, 고전을 읽는 법, 갑인출판사, 1985.
8.
181. 고영근, 처용가의 한 해독, 어문학논총(떡남 김일근박사 화갑기념),
동안행위원회, 1985. 10.
182. 최종율, 처용설화의 서사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 교육
대학원, 1986. 2.
183. 김승찬, 처용가,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6. 3.
184. 김경수, 처용가의 연구사적 검토, 신라문학의 신연구, 신라문화제 학술
발표회 논문집 7, 신라문화선양회, 1986. 2.
185. 김순진, 고려처용가와 신명, 고려시가의 정서, 김대행 편, 개문사,
1986. 8.
186. 홍재휴, 처용가 碑陰記攷 - 「사랑으로 변하여」에 대하여 - 靑泉 강용
권박사 송도기념논총, 1986. 10.
187. 김진영, 처용의 정체, 한국문학사의 쟁점, 장덕순 외, 집문당, 1986.
11.
188. 이창식, '처용전승'의 형성과 그 수용양상, 栴園김기동박사회갑기념논
문집, 교학사, 1986. 11.
189. 허남춘, 고려속요와 민속 - 처용가 · 만전춘별사를 중심으로 -, 성대문
학 25, 성균관대 국어국문학회, 1987. 5.
190. 박창원, 처용가의 재검토, 우해 이병선박사 화갑기념논총, 1987. 8.
191. 이충휘, 처용가무의 변이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 교육대학원,
1987. 2.
192. 김문태, 처용랑망해사조의 구조와 의미 - 일연의 시각을 중심으로 -,
성대문학 25, 성균관대 국어국문학회, 1987. 5.
193. 정창일, 처용가연구 - 3구 · 6명 법식에 의한 -, 어문연구 15, 충남대
어문연구회, 1987. 11.
194. 정창일, 처용가, 향가신연구, 세종문화사, 1987.

195. 조동일, 처용가무의 연극사적 이해, 처용무의 이론적 고찰, 서울시립무용단, 1988. 1.
196. 최진원, 처용가의 신화상징성, 처용무의 이론적 고찰, 서울시립무용단, 1988. 1.
197. 김열규, '처용랑망해사'의 민속학적 의미, 처용무의 이론적 고찰, 서울시립무용단, 1988. 1.
198. 김천홍, 처용무, 처용무의 이론적 고찰, 서울시립무용단, 1988. 1.
199. 이두현, 처용무와 가면, 처용무의 이론적 고찰, 서울시립무용단, 1988. 1.
200. 김채현, 처용무의 미학적 반성, 처용무의 이론적 고찰, 서울시립무용단, 1988. 1.
201. 한 무, 처용무의 보법에 관하여, 처용무의 이론적 고찰, 서울시립무용단, 1988. 1.
202. 문일지, 처용설화에 관한 기타 설화, 처용무의 이론적 고찰, 서울시립무용단, 1988. 1.
203. 장주근, 처용설화의 고찰, 처용무의 이론적 고찰, 서울시립무용단, 1988. 1.
204. 임기중, 처용노래와 그 이야기의 변신모티브, 문학과 비평 통권 5호, 1988. 3.
205. 이창식, '처용전승'의 특질과 변화, 새국어교육 42·43합, 한국국어교육학회, 1988. 6.
206. 박기호, 「처용랑망해사」조와 「처용설화」의 연구, 한양어문연구 6집, 1988. 12.
207. M. 간수, 아랍-무슬림들의 신라내왕과 처용, 중동·아프리카연구 제 3호, 중동·아프리카연구원, 1988.
208. 박진태, 굿의 맥락에서 본 처용설화와 처용가, 논문집 34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9. 1.
209. 고정익, 처용가 해독의 재검토, 울산어문논집 5집, 1989. 2.

210. 정은미, 처용가의 무속적 성격 고찰, 사립어문연구 6, 창원대 국어국문학회, 1989. 2.
211. 윤광봉, 처용가무의 변이 양상, 송하이종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1989. 5.
212. 이근표, 처용설화의 연구 - 구조적 변이 및 제의적 양상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논문집 37, 서울대 국어교육과, 1989. 8.
213. 최용수, '처용가고, 영남어문학 제16집, 영남어문학회, 1989.
214. 김경수, 처용가의 연구 현황,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 편, 울산문화원, 1989. 12.
215. 小倉進平, 처용가 해독(1),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 편, 울산문화원, 1989. 12.
216. 양주동, 처용가 해독(2),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 편, 울산문화원, 1989. 12.
217. 김완진, 처용가 해독(3),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 편, 울산문화원, 1989. 12.
218. 김동욱, 처용과 처용가,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 편, 울산문화원, 1989. 12.
219. 황패강, 처용가의 미의식,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 편, 울산문화원, 1989. 12.
220. 장주근, 처용설화의 연구,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 편, 울산문화원, 1989. 12.
221. 서대석, 처용가의 무속적 고찰,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 편, 울산문화원, 1989. 12.
222. 조동일, 처용가무의 연극사적 이해,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 편, 울산문화원, 1989. 12.
223. 이용범, 처용설화의 일고찰 - 唐代 이슬람상인과 신라 -,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 편, 1989. 12.
224. 이우성, 삼국유사소재 처용설화의 일본식, - 고려기인제도의 기원과

- 관련에서,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 편, 울산문화원, 1989. 12.
225. M. 간수, 아랍 - 무슬림들의 신라내왕과 처용,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 편, 울산문화원, 1989. 12.
226. 소용섭, 처용가의 배경설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 교육대학원, 1990. 2.
227. 최 철, 처용가,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3.
228. 안태욱, 처용설화의 불교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 교육대학원, 1990. 8.
229. 이지향, 처용가무의 연구, 장한기 박사화갑기념논문집, 동간행위원회, 1990. 10.
230. 김학성, 처용설화 서술구조와 처용가의 성격, 문학한글 4호, 한글학회, 1990. 12.
231. 김영수, 처용가연구 재고 - 연구사를 중심으로 -, 신라문화 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0. 12.
232. 조명환, 불교적 용신사상과 향가, 건국어문학 제15·16합집,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1. 3.
233. 최용수, 처용가, 고려가요의 유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 대학원, 1991. 8.
234. 최남희, '처용가' 제8구에 대하여, 들메 서재극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1. 10.
235. 박진태, '처용가'의 제의적 구조와 기능, 임하 최진원박사 정년기념논총, 고전시가의 이념과 표상, 동간행위원회, 1991. 11.
236. 임기중, 처용가의 변신모티브,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 동국대 출판부, 1992. 3.
237. 최재남, <처용가>의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2. 10.
238. 나경수, 처용가의 서사적 이해, 국어국문학 108, 국어국문학회, 1992. 12.

239. 윤영옥, 처용가, 향가문학연구, 황패강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I, 간행위원회 편, 일지사, 1993. 4.
240. 금기창, 처용가에 대하여, 어문학 54, 靑河 김형수박사 화갑기념호, 한국어문학회, 1993. 5.
241. 최용수, 처용가 연구의 현황, 영남어문학 제23집, 영남어문학회, 1993. 6.